

<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전년동월비) 중감 >



이커머스 플랫폼 간에는 어떤 차별화 요소가 있을까?

수요층

~연령대

~성별

~직업

판매 품목

~어떤 것이든

~특정 품목만

이용자 분류

~관리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판매자

서비스

~배송

~상품(PB/독점)

판매 품목으로 분류해본 이커머스 플랫폼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 파는 곳들 사이에도 특화된 부분과 사용자 경험 상의 차이가 있었다.

중고나라

애초에 플랫폼이 중고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 자체는 불편한데, 유명하기때문에 사람/물품이 많음 사이트 자체에서 거래를 지원하지 않아 무조건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거래/지불해야함(외부 안전거래 모듈을 지원하기는 함)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오픈마켓(지마켓,네이버스토어팜...)

중고보다는 사업자 위주이긴 함

ebay

경매장에 가까운 사용자 경험, 수집품 위주인 경향이 있음

amazon

새 상품 옆에 중고상품을 표시해주며, 자세한 상태는 글로만 알 수 있음. 개인 셀러/아마존/중고제품이 혼재

craiglist, 벼룩시장(http://www.findall.co.kr/)

물품 뿐만 아니라 구인구직, 부동산 거래 등, 가능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짐

특정 물품

특정 물품으로 한정짓는 것과 제한을 두지않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음

교보문고, 알라딘, yes24...

책에 특화된 UX, 하지만 개인간 중고 거래 기능은 미흡한 편, 알라딘은 자사의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한 중고거래 기능에 중점

abebooks

아마존 산하의 미술품, 수집품, 책 전문 중고 거래 사이트

회사 입장에서의 이커머스와 중고거래 Story

중고 거래 과정 Story

택배거래

상품이 서버에 등록됨

- ~ 구매자가 구매요청
- ~ 구매자가 양식을 작성
- ~ 결제모듈(안전거래)
- ~ 결제완료 후 판매자에게 정보 전송
-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배송
- ~ 배송완료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

직거래

상품이 서버에 등록됨

- ~ 구매자가 구매요청
- ~ 구매자/판매자가 거래 ~ 완료

이커머스 거래 단계 Story

상품이 물류창고로 이송됨

- ~ 상품 정보(재고 수량, 상품 색상, 사이즈 등의 옵션, 상품을 적재할 위치 ...)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 ~ 상품을 적재
- ~ 판매 시작
- ~ 구매 요청(양식 작성 + 결재)
- ~ 결재완료된 상품을 반출
- ~ 여러 상품일 시, 한 박스에 포장하기위해 모음
- ~ 외부 배송업체/자체 배송 시스템에 등록
- ~ 배송장에 집하
- ~ 배송 ~ 배송완료

물류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https://www.youtube.com/watch?v=e9X4s2_h88c https://www.youtube.com/watch?v=_pUuGEbkfvA https://www.youtube.com/watch?v=Y-lBvI6u_hw https://www.youtube.com/watch?v=YiafbO-gqF4